



2011 동아시아 간호포럼(EAFONS) 초록분석을 통한 아시아 간호연구의 동향 분석*

최명애¹⁾ · 방경숙²⁾ · 김남초³⁾ · 김신정⁴⁾ · 김용순⁵⁾ · 김화순⁶⁾ · 류은정⁷⁾ · 박영임⁸⁾ · 소향숙⁹⁾
신성례¹⁰⁾ · 오경옥¹¹⁾ · 이경숙¹²⁾ · 이선옥¹³⁾ · 이은자¹⁴⁾ · 정재심¹⁵⁾ · 조미경¹⁶⁾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동아시아 간호포럼(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EAFONS])은 간호학 박사교육의 질을 증진, 강화시키고 국제적인 협동과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간호학회지들의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홍콩 Polytechnic University의 Ida Martinson을 중심으로 창립되었으며 회원국은 한국, 홍콩, 태국, 필리핀, 대만, 일본과 싱가포르이다. 1997년 이래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forum을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대회를 통해 간호학자, 박사과정생들이 학문적 경험을 공유해오고 있다. 한국은 2005년에 이화여자대학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06년에 태국, 2007년에 필리핀, 2008년에 대만, 2009년에 일본, 2010년에 홍콩, 2011년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EAFONS는 회원국들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유일한 학술대회로 동아시아 각국의 간호학 전문인들이 모여 간호 교육, 이론, 실무에 대한 간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 2011년에 개최되었던 제 14회 동아시아 간호포럼은 “Research methodology for building nursing evidence”를 주제로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간호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동아시아 간호학자와 대학원

생, 임상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고 총 539편의 논문을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하였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연구경험을 공유하였는데 그 의의가 크다.

간호연구는 간호전문직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지식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탐구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으로 간호 실무에 적용할 근거를 생성한다. 근거중심실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연구는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간호분야 학술지의 창간, 중간과 함께 교수 뿐 아니라 임상간호사들도 다양한 주제의 간호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간호과학회가 발간하는 대한간호학회지와 한국간호과학회 산하의 분야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지 편집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연구 경향을 분석하거나 다양한 연구팀들에 의한 학위 논문 분석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동아시아 간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밝히고 의미 있는 연구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인 체계정립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연구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한경자, 김현아, 김숙영, 김정수,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2월 11일부터 2월 12일에 걸쳐서 실시되었던 제14회 EAFONS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초록을 분석하여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간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동아시아 간호

주요어 : 아시아, 간호, 연구

* 본 연구는 한국간호과학회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교신저자 E-mail: ksbang@snu.ac.kr)
3) 가톨릭대학교, 4) 한림대학교, 5) 아주대학교, 6) 인하대학교, 7) 중앙대학교, 8) 대전대학교, 9) 전남대학교
10) 삼육대학교, 11) 충남대학교, 12) 강릉원주대학교, 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4) 가천대학교, 15) 울산대학교, 16) 을지대학교
투고일: 2012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7월 3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3일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시아 각국에서 출간된 학술지의 논문을 분석한 것은 아니고 일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은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뿐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연구경향이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국가 간의 학술 교류를 확대하며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동아시아 간호 연구의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간호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초록을 대상으로 간호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주요국가별 연구방법의 특성을 비교하고, 주제 및 주요어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14회 EAFONS에서 발표된 논문의 초록에 제시된 연구방법과 주요어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2011년 2월 11일부터 2월 12일에 걸쳐서 개최되었던 제14회 EAFONS (간호과학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간호교육학회, 2011)에서 구두 발표된 논문 180편과, 포스터로 발표된 논문 359편을 합하여 총 539편의 논문 초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논문 초록 분석에 있어서 일관된 틀을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초록 분석의 틀을 확정하였다. 초록 분석틀에 연구자의 특성, 연구 설계 유형, 연구대상자의 특성, 자료수집 방법, 윤리적 측면, 간호중재, 종속변수, 주요 개념, 통계분석방법, 주요어 등을 포함하였다.

주요어는 간호의 메타패러다임인 인간, 환경, 건강, 간호를 대 영역으로 하여 분류하고 하부영역은 분석을 진행하면서 연구팀의 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

제14회 EAFONS에서 발표된 논문의 초록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방경숙 등, 2008; 최명애 등, 2010; 최명애, 방경숙, 박연환, 강현주, 2011) 초록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예비분석을 실시한 후 명확하지 않거나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해 토의를 거쳐 분석 틀을 수정한 후 1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1차 분석 후 명확하지 않거나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연구자들이 모여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하여 최종 분석 틀을 확정하였다. 이를 부호화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를 구하였다.

주요어에 대한 분석은 합의한 연구도구의 틀에 따라 분류한 후 한국, 일본, 기타 국가별로 빈도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자 및 발표 유형

● 연구자의 특성

연구자의 국적을 제 1저자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일본이 175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국이 168명(31.2%), 대만이 67명(12.4%), 필리핀이 52명(9.7%)이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대만, 필리핀, 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을 묶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를 제 1저자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대학이나 병원의 경우 직책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대학 소속이 436명(80.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한국이 139명(82.7%), 일본 또한 154명(88.0%), 기타 국가들도 143명(73.0%)으로 나타났다.

발표 유형을 보면, 포스터 발표가 전체의 66.4%를 차지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151편(89.9%), 153편(87.4%)으로 포스터 발표가 대부분이었으나 기타 국가들의 경우에는 구두 발표가 142편(72.4%)으로 더 많았다<Table 1>.

연구 방법 분석

● 이론적 기틀 및 연구설계

이론적 기틀에 대해 기술한 경우는 전체 논문 중 35편(6.5%)뿐이었으며, 이는 국가별로도 모두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발표된 연구 유형은 양적 연구가 418편(7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적 연구는 93편(17.3%)이었으며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도 16편(3.0%)이 있었다. 양적연구의 비율은 한국이

<Table 1> First author's affiliation and presentation type

Variables	Categories	Korea	Japan	Other countries	Total
		(n=168)	(n=175)	(n=196)	(N=539)
		n(%)	n(%)	n(%)	n(%)
Affiliation	College-faculty	139(82.7)	154(88.0)	143(73.0)	436(80.9)
	Hospital	8(4.8)	2(1.1)	19(9.7)	29(5.4)
	College & hospital	3(1.8)	13(7.4)	22(11.2)	38(7.1)
	Research center	2(1.2)	0(0.00)	7(3.6)	9(1.7)
	College-Student	13(7.7)	6(3.4)	4(2.0)	23(4.3)
	Other	3(1.8)	0(0.00)	1(0.5)	4(0.7)
Presentation type	Oral	17(10.1)	22(12.6)	142(72.4)	181(33.6)
	Poster	151(89.9)	153(87.4)	54(27.5)	358(66.4)

Other countries: Taiwan, Philippine, Thailand, China, Hong Kong, Singapore, USA, Canada, England, Austria

<Table 2> Conceptual framework and research design

Variables	Categories	Korea	Japan	Other countries	Total
		(n=168)	(n=175)	(n=196)	(N=539)
		n(%)	n(%)	n(%)	n(%)
Conceptual framework	Yes	10(6.0)	7(4.0)	18(9.2)	35(6.5)
	No	158(94.0)	168(96.0)	178(90.8)	504(93.5)
Research type	Quantitative study	151(89.9)	131(74.9)	136(69.4)	418(77.6)
	Qualitative study	13(7.1)	30(17.1)	50(26.0)	93(17.3)
	Triangulation	2(1.2)	7(4.0)	7(3.6)	16(3.0)
	Others	3(1.8)	7(4.0)	2(1.0)	12(2.2)
			(n=151)	(n=131)	(n=136)
Quantitative design	True experimental	4(2.6)	2(1.5)	5(3.7)	11(2.6)
	Quasi experimental	30(19.9)	14(10.7)	18(13.2)	62(14.8)
	Primitive experimental	0(0.0)	7(5.3)	7(5.1)	14(3.3)
	Survey	105(69.5)	82(62.6)	76(55.9)	263(62.9)
	Systematic review	3(2.0)	9(6.9)	14(10.3)	26(6.2)
	Others	9(6.0)	17(13.0)	16(11.8)	42(10.0)
		(n=13)	(n=30)	(n=50)	(n=93)
Qualitative design	Phenomenological	6(46.2)	9(30.0)	21(42.0)	36(38.7)
	Grounded theory	1(7.7)	1(3.3)	5(10.0)	7(7.5)
	Ethnography	2(15.4)	1(3.3)	1(2.0)	4(4.3)
	Content analysis	4(30.8)	11(36.7)	13(26.0)	28(30.1)
	Others	0(0.0)	1(3.3)	6(12.0)	7(7.5)
	Unknown	0(0.0)	7(23.3)	4(8.0)	11(11.8)

Other countries: Taiwan, Philippine, Thailand, China, Hong Kong, Singapore, USA, Canada, England, Austria

151편(89.9%)으로 일본 131편(74.9%), 기타 국가 136편(69.4%)에 비해 더 많았다. 질적연구에 있어서는 일본이 30편(17.1%), 기타 국가가 50편(26.0%)으로 한국 13편(7.1%)에 비해 더 많았다.

양적연구로 확인된 418편에서 실험연구는 87편(20.8%), 비실험연구는 331편(79.2%)으로 비실험연구가 더 많았으며 실험연구중에서는 유사실험, 원시실험, 순수실험의 순으로 순수실험은 매우 작은 비율을 보였다.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한국은 유사실험이 30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원시실험은 없었으나, 일본과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원시실험도 5% 정도씩 있었다. 비실험연구 331편에서는 조사연구가 263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조사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일본과 기타 국가에서는 일부 체계적 문헌고찰과 방법론적 연구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질적연구로 확인된 93편에서는 현상학적 연구가 36편(38.7%), 내용분석 연구가 28편(30.1%) 순으로 많았고, 언급이 없어 알 수 없는 경우도 11편(11.8%)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나 기타 국가와는 달리 내용분석 연구가 36.7%로 현상학적 연구보다 더 많았다<Table 2>.

● 연구 대상 특성 및 표본추출 방법

연구 대상의 특성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성인(61.0%)과 노인(11.9%)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에 있어서는 확률적 방법을 택한 경우가 단지 28편(5.2%)이었으며

<Table 3> Participant's developmental stages & sampling method

Variables	Categories	Korea	Japan	Other countries	Total
		(n=168)	(n=175)	(n=196)	(N=539)
		n(%)	n(%)	n(%)	n(%)
Developmental stages	Child	3(1.8)	4(2.3)	7(3.6)	13(2.4)
	Adolescent	3(1.8)	1(0.6)	15(7.7)	19(3.5)
	Adult	113(67.3)	108(61.7)	108(55.1)	329(61.0)
	Elderly	23(13.7)	16(9.1)	25(12.8)	64(11.9)
	Others	2(1.2)	4(2.3)	6(3.1)	12(2.2)
	Not applicable	24(14.3)	42(24.0)	35(17.9)	101(18.7)
Sampling	Probability	8(4.8)	7(4.0)	13(6.6)	28(5.2)
	Non-probability	129(76.8)	129(73.7)	159(81.1)	417(77.4)
	Not applicable	29(17.3)	36(20.6)	20(10.2)	85(15.8)
	Unknown	2(1.2)	3(1.7)	4(2.0)	9(1.8)

Other countries: Taiwan, Philippine, Thailand, China, Hong Kong, Singapore, USA, Canada, England, Austria

<Table 4> Data Collection and statistical method

Variables	Categories	Korea	Japan	Other countries	Total
		(n=168)	(n=175)	(n=196)	(N=539)
		n(%)	n(%)	n(%)	n(%)
Data collection	Questionnaire	109(64.9)	87(49.7)	96(49)	292(54.2)
	Interview	16(9.5)	33(18.9)	57(29.1)	106(19.7)
	Medical record	4(2.3)	7(4)	10(5.1)	21(3.9)
	Observation	9(5.3)	10(5.7)	12(6.1)	31(5.8)
	Physiologic measures	16(9.5)	22(12.5)	8(4.1)	46(8.5)
	Cell culture	2(1.2)	1(0.6)	1(0.5)	4(0.7)
	Others	18(10.7)	27(15.4)	35(17.9)	80(14.8)
		(n=151)	(n=131)	(n=136)	(n=418)
Quantitative research	Descriptive statistics	102(67.5)	89(67.9)	77(56.6)	268(64.1)
	Mean comparison	72(47.7)	43(32.8)	46(33.8)	161(38.5)
	Pearson's correlation	38(25.1)	14(10.7)	23(16.9)	75(17.9)
	Chi-square test	19(12.6)	2(1.5)	7(5.1)	28(6.7)
	Regression	18(11.9)	9(6.8)	10(7.3)	37(8.9)
	Factor analysis	2(1.3)	4(3.1)	9(6.6)	15(3.6)
	Nonparametric mean comparison	6(4.0)	1(0.8)	3(2.2)	10(2.3)
	Others	12(7.9)	3(2.2)	9(6.6)	24(5.7)
		(n=13)	(n=30)	(n=50)	(n=93)
Qualitative research	Content analysis	11(84.6)	30(100.0)	46(92)	87(93.5)
	Analysis of observational behavior	2(15.4)	0(0.0)	2(4)	4(4.3)
	Others	2(15.4)	2(6.7)	8(16)	12(12.9)

*Multiple responses.

Other countries: Taiwan, Philippine, Thailand, China, Hong Kong, Singapore, USA, Canada, England, Austria

대부분이 비확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 일본, 기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Table 3>.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분석 시 중복 응답을 허용한 설문지가 292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면담으로 106건(19.7%), 기타가 80건(14.8%)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국가별로는 기타 국가와 일본의 경우 면담이 차

지하는 비중이 각각 18.9%, 29.1%로 한국 9.5%에 비하여 더 높았다. 양적연구 자료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기술통계가 268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평균비교가 161건(38.5%), 상관관계검정이 75건(17.9%)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일본과 기타 국가에 비해 기술통계나 평균비교 외에 회귀분석 등 다른 분석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질적연구 자료 분석 방법에서는 내용분석이 94.6%로 가장 많이 사용된 분석방법이었다<Table 4>.

연구 주제 및 주요어 분석

● 연구 제목을 중심으로 한 주제별 분류
 학술대회에서는 연구 제목을 중심으로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에 대한 주제를 검토하여 elderly care, acute & cancer

care, chronic disease, women's health, child health care, parenting, mental health, health promotion, nurse & nursing management, nursing education, research & theory의 10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은 주제는 간호사와 간호행정에 대한 것이었으며, 간호교육, 연구 및 이론, 그리고 노인간호와

<Table 5> Main themes of researches

Theme	Oral presentation (n=180)		Poster (n=359)		Total (N=539)	
	n	(%)	n	(%)	n	(%)
Elderly care	29	(16.1)	44	(12.3)	73	(13.5)
Acute/Cancer care	16	(8.9)	31	(8.6)	47	(8.7)
Chronic disease	20	(11.1)	35	(9.7)	55	(10.2)
Women's health	13	(7.2)	25	(7.0)	38	(7.1)
Child health care	14	(7.8)	19	(5.3)	33	(6.1)
Parenting	11	(6.1)	16	(4.5)	27	(5.0)
Mental health	8	(4.4)	28	(7.8)	36	(6.7)
Health promotion	20	(11.1)	39	(10.9)	59	(10.9)
Nurse/ Nursing management	28	(15.6)	64	(17.8)	92	(17.1)
Nursing education, Research/Theory	21	(11.7)	58	(16.2)	79	(14.7)

<Table 6> Keywords in each domains according to countries

Domain (n)	Category	Subcategory	Korea	Japan	Other countries	Total
1. Human (233)	Client (1_1)	Healthy personnel (1_1_1)	39	37	47	123
		Patient (1_1_2)	4	12	7	23
		Caregiver (1_1_3)	8	9	9	26
	Health Care Professional (1_2)	Nurse (1_2_1)	16	22	6	44
		Nursing student (1_2_2)	4	4	6	14
		Instructor(1_2_3)	0	1	2	3
2. Environ-ment (167)	Physical Environment (2_1)	Physical Environment (2_1_1)	15	18	31	64
	Psychosocial Environment (2_2)	Psychosocial Environment (2_2_1)	21	34	48	103
3. Health (659)	Health problem (3_1)	Physical organ (3_1_1)	15	27	6	48
		Illness (3_1_2)	87	56	82	225
		Burden (3_1_3)	18	14	18	50
		Others(3_1_4)	3	0	5	8
	Health Risk (3_2)	Substance (3_2_1)	3	6	14	13
		Development (3_2_2)	3	7	5	15
		Behavior(3_2_3)	3	7	6	16
	Health Promotion (3_3)	Client Response (3_3_1)	56	23	35	114
		Health Outcome (3_3_2)	59	46	65	170
	4. Nursing (554)	Research & Education (for student) (4_1)	Research (4_1_1)	32	44	42
Education (4_1_2)			20	10	27	57
Nursing Intervention (4_2)		Client Education & counseling(4_2_1)	13	16	22	51
		Basic Nursing Care (4_2_2)	40	65	34	139
		Therapy (4_2_3)	26	21	18	65
		Collaborative Nursing (operation, day-surgery, etc) (4_2_4)	9	17	16	42
Nursing Administration (4_3)	Nurse (4_3_1)	28	21	16	65	
	Others(4_3_2)	7	6	4	17	

Other countries: Taiwan, Philippine, Thailand, China, Hong Kong, Singapore, USA, Canada, England, Austria

관련된 주제였다. 그러나 만성질환, 건강증진, 암환자 간호, 아동과 여성 관련 연구 및 정신간호 등 주제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5>.

● 주요어 분류 틀 및 국가별 주요어 빈도

주요어 분류 틀로서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에 따라 4개의 도메인으로 분류한 후 인간은 간호대상자와 전문적 간호제공자의 2개의 범주(category)로, 환경은 물리적, 사회심리적 환경의 2개의 범주로, 건강은 건강문제, 건강위험, 건강증진의 3개의 범주로, 간호는 간호연구와 교육, 간호중재, 간호행정의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총 10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각 범주에 해당되는 주요어를 살펴보면 적절할 하위범주를 분류하여 하위범주(subcategory)는 총 25개가 되었다.

모든 주요어를 국가별로 분류할 수는 없어 도메인, 범주, 하위범주까지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되는 주요어를 분류하였다. 국가별로 주요어를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메타패러다임과 범주, 하위범주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네 개의 메타패러다임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일본, 기타 나라를 비교한 결과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며 총 1,613개의 주요어를 분류한 결과 인간 도메인 233개, 환경 도메인 167개, 건강 도메인 659개, 간호 도메인 554개로, 건강관련 주요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역별 주요어 분석

각 메타패러다임(도메인), 범주, 하위범주별로 제시된 주요어는 너무 다양하여 모두 제시할 수는 없어 2회 이상 나타난 것 위주로 정리하였다.

• 인간

인간 도메인에서는 대상자와 간호제공자로 범주를 분류하고 하위범주별로도 주요어를 분류해보았는데 노인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대상자에서는 여성, 어머니, 이민자, 암환자 등이 빈도가 높았다. 간호제공자에서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동일한 뜻을 나타내는 주요어이나 통일이 안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노인의 경우 elderly, older people, senior citizen, aged, older adult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었다<Table 7>.

• 환경

환경 도메인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심리사회적 환경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물리적 환경에서는 재난, 학교, 병원 등과 각 국가명이 빈도가 높은 주요어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환경에서는 사회적지지, 경험, 윤리, 지역사회 등의 빈도가 높았다. 다양한 주요어들은 좀 더 공통된 주요어로서 체계화되고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Table 8>.

• 건강

건강 도메인에서는 각 신체 장기를 나타내는 용어, 질환명이 주로 열거되었는데, 중립적으로 신체기관만을 표현한 것은 신체기관으로,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질병으로 분류하였

<Table 7> Keywords in client domain

Categories	Subcategories	Key words
Client (1_1)	Healthy personnel	elderly(older people, aged, senior citizen)(32), women(14), mother(12), student(9), immigrant(7), children(7), adolescents(6), Filipino(5), adults(3), neonate(2), working women(2), workers(2)
	Patient	cancer patients(5), dementia patients(4) disabled(2), blind-elderly, ELBWI, icu patients, impaired old people,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 outpatient, psychiatric patients, simulated patient, standardized patients, stroke patients, survivors, vulnerable people
	Caregiver	caregiver(8), family(6), family caregiver(5), health care provider(2)
Health care professional (1_2)	Nurse	nurse(21), midwife(2), nurse practitioner(2)
	Nursing student Instructor	nursing student(11), student nurses(3) clinical instructors, clinical preceptor, nurse teacher

<Table 8> Keywords in environment domain

Categories	Subcategories	Key words
Physical environment (2_1)	Physical environment	disaster(4), Japan(4), school(4), Thailand(3), hospital(3), earthquake(2), NICU(2), ICU(2), nursing home(2)
Psychosocial environment (2_2)	Psychosocial environment	social support(11), experience(6), ethics(6), community(4), gender(3), support(3), volunteer(3), acculturation(2), children's right(2), personality(2), stigma(2), peer(2), violence(2)

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우울, 스트레스로서 현대인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요구도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이 현대의 주요 건강문제인 만큼 암, 또는 장기별 암도 빈도가 높았으며 치매도 빈도가 높았다, 건강 결과에서는 삶의 질이 가장 빈도가 높은 주요어였다<Table 9>.

• 간호

간호 도메인에서는 간호연구와 교육, 간호중재, 간호행정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간호연구와 교육에서는 질적연구, 개념분석, 교과과정이 빈도가 높았으며 간호중재에서는 간호, 교육, 사정 등이, 그리고 요법(therapy)중에서는 마사지

<Table 9> Keywords in health domain

Categories	Subcategories	Key words
Health problem (3_1)	Physical organ (3_1_1)	blood pressure(2), heart rate variability(HRV)(2), brain(2)
	Illness (3_1_2)	depression(22), dementia(16), schizophrenia(11), stroke(9), pain(9), cancer(8), breast cancer(7), diabetes mellitus(6), chronic disease(5), heart failure(5), symptom(4), delirium(3), depression symptom(3), Alzheimer's(2), asthma(2), autism(2), colorectal cancer(2), coronary artery disease(2), hypertension(2), illness(2), leukemia(2), lung cancer(2), metabolic syndrome(3), obesity(2), Parkinson's disease(2), PTSD(2), urinary incontinence(2)
	Burden (3_1_3)	stress(22), fatigue(5), risk(4), risk factor(3), burden(2), caregiver burden(3), emergency(2), lived experiences(2)
	Others (3_1_4)	death(dying)(4), end-of-life(2)
Health risk (3_2)	Substance (3_2_1)	alcohol(4)
	Development (3_2_3)	pregnancy(4), aging(3), postpartum(3)
	Behavior(3_2_4)	wandering(4), smoking(2)
Health promotion (3_3)	Client response (3_3_1)	knowledge(14), anxiety(8), attitude(8), perception(7), self-efficacy(6), need(5) competency(4), perceived health(4), adherence(3), hope(3), maternal confidence(3), self-esteem(3), awareness(3), cognition(2), satisfaction(2), self-concept(2)
	Health outcome (3_3_2)	QOL(25), activity(10), exercise(7), health behavior(8), health(5), mental health(5), sleep(5), self-care(4), activity(3), coping(3), psychological adjustment(3), breast feeding(3), empowerment(3), lifestyle(3), health management(2), health promoting behavior(2), health promotion(2), infection rate(2), physical fitness(2), prevention(2), quality(2), self-management(2)

<Table 10> Keywords in nursing domain

Categories	Subcategories	Key words
Research & Education (for student) (4_1)	Research (4_1_1)	qualitative research(8), concept analysis(4), reliability(4), longitudinal study(3), validity(3), development(2), scale(2), ethnography(2), focus groups(2), narrative(2), nursing research(2), phenomenology(2), Q-methodology(2), systemic-review(2), trans theoretical model(2)
	Education (4_1_2)	curriculum(4), psychiatric(4), nursing education(8), learning(5), simulation(3), teaching(3), training(3), nursing guidance(2), OSCE(2), PBL(2)
Nursing intervention (4_2)	Client education & counseling (4_2_1)	education(6), counseling(3), education need(2), family nursing(2), health education(2), nursing practice education(2)
	Basic nursing care (4_2_2)	nursing(12), assessment(5), communication(3), decision making(3), home care(3), medication(3), tag(3), caregiving(2), care(2), child care(2), clinical practice(2), clinical skill(4), community care(2), evidence-based care(2), end-of-life care(2), health care(2), home care nursing(2), hygiene(2), intervention(2), intramuscular injection(2), informatics(2), long-term care(2), nursing(2), nursing intervention(2)
	Therapy (4_2_3)	massage(4), music therapy(3), relaxation(3), meditation(2), music(3), aroma therapy(2), image(2), art therapy, ART(2), Tai Chi(2)
	Collaborative nursing (4_2_4)	ultrasonography(4), surgery(3)
Nursing administration(4_3)	Nurse (4_3_1)	nursing professionalism(4), job satisfaction(3), attitudes(2), nursing manpower(2), preparedness(2), satisfaction(2), take performance(2), competency(2), intention(2), nursing productivity(2), turnover(2)
	Others(4_3_2)	management(3), hospital administration(2)

의 빈도가 높았다. 간호행정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주요어는 전문직(professionalism)이었다<Table 10>.

논 의

간호연구는 간호학에서 흥미 있는 개념이나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실무를 위한 고유한 지식체를 확인하고 발전시켜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이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2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 14차 동아시아 간호포럼(EAFONS)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초록 분석을 통해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간호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본문 없이 초록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이다. 그러나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일본과 기타 국가들의 연구를 분석하고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간호연구 동향 분석 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발표 유형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포스터발표에 대부분이 치중되어 있는 반면 그 이외의 나라들은 반대로 70.0% 이상이 구두발표를 선택하였다. 한국이나 일본의 연구자들이 영어로 발표해야 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의 구두발표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어 구사가 비교적 자유로운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구두발표를 선호하여 국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구두발표인 경우 현장에서 참여자들과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보다 더 활발하게 국제학술대회에서의 구두발표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연구의 개념들은 대상 논문의 6.5%에 불과하여 이론에 기반한 연구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국내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이광자 등(2012)의 연구에서는 이전보다 이론적 기틀을 적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특성상 그러할 것이다. 학위 논문이 아닌 일반연구에서도 이론적 기틀에 근거한 연구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간호이론과 연구, 실무의 연계와 발전을 더욱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설계에서 한국은 질적연구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연구 중에서 실험연구는 참여국가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표되었다. 한국의 연구들이 순수실험연구는 거의 없으나 대부분 유사실험연구에 속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원시실험 수준의 연구들도 많아 한국이 실험설계의 통제에 있어서는 훨씬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학회에 발표된 양적연구에서는 무작위배정임상시험설계

(RCT)가 적용된 연구가 없었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거중심 간호실무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RCT 연구수행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Mantzoukas, 2009; Rahm-Hallberg, 2006)을 고려할 때, 간호학계의 학문적 차원이거나 실무적 발전을 위해 순수실험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간호사 교육과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겠다(McSherry, Artley, & Holloran, 2006). 또한 유사실험연구라 하더라도 결과와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구설계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반복연구를 통해 중재의 효과가 확인된다면 충분히 실무적용이 가능할 것이다(최명애, 방경숙, 박연환, 강현주, 2011). 본 연구들에서는 또한 인과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메타분석이나 RCT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차적 연구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장려되어야 하겠다.

순수실험연구나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및 메타합성과 같은 이차 연구 방법론이 적용된 논문이 적은 것은 현재 간호학 연구의 대부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윤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함과 경제적 비용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과거의 연구와 연구개념들을 보다 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재산출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어야 근거중심의 간호지식체 개발과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대상자 측면에서 본 연구들을 분석하면, 생애주기별로서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의 75.0% 이상이 성인과 노인연구비율이 높은 일본, 한국, 대만에서 참석한 것이 한가지 요인으로 고려된다. 연구대상자의 표본추출방법은 양적연구에서 조사연구설계가 많았기 때문에 비확률적 방법이 가장 많았고 참여 국가 모두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 이외에 면담, 관찰, 생리적 측정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적연구 중에서 참여 국가 모두 조사연구가 많이 시행된 것과 상통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제출한 논문의 경우 생리적 측정을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으나 지난 14년간의 임상간호연구 논문을 분석한 최명애 등(2010)의 연구에서 생리적 측정이 15.5%에 해당하였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편인데, 이는 최명애 등의 연구가 임상의 연구 중심으로 분석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은 지역의 대상자나 간호교육, 관리에 관련된 것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을 파악해보는 것은 간호의 지식체를 확장시켜 주는 간호학 연구와 이론 개발에

있어 가장 전초적이고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는데, 개념이란 어떤 형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다(Walker & Avant, 2005). 본 연구에서는 주요어 분석을 통해 관심 개념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EAFONS에서 발표된 초록의 주요어를 간호학의 메타패라다임을 기반으로 인간, 환경, 건강, 간호와 이들의 하부 영역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주요어는 총 1,613개로 논문 한편 당 평균 3개의 주요어가 제시되었으며, 2-3개의 주요어를 제시한 것이 71.1%로 가장 많았다. 발표된 초록에서 주요어의 총 빈도는 건강, 간호, 인간,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간호학회 분야별 간호학회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김소야자 등(2002)의 연구에서 주요개념은 총 299개로 분류되었으며 건강이 110편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가 84편, 인간이 55편, 환경이 15편이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국가별로는 한국에서는 주요어의 빈도가 건강 46.7%, 간호 33.1%, 인간 13.4%, 환경 6.8%순으로, 국내 다른 학회지들의 논문분석에서도 건강영역의 주요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환경영역의 주요어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간호 학회지를 제외한 다른 국내 학회지에서 환경영역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김중임 등, 2010; 방경숙 등, 2008; 서문자 등, 2001; 송경애 등, 2008; 양숙자 등, 2011; 이규은, 박영례, 조근자, 박미정, 2011)와 일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어의 빈도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간호 38.2%, 건강 35.6%, 인간, 환경 순으로 간호영역의 주요어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건강 41.3%, 간호 31.3%, 환경, 인간 순으로 환경영역에 대한 주요어의 빈도가 인간영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초록의 주요어를 분석한 결과, 각 국가별 주요어의 빈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네 개의 메타패라다임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를 네 개의 메타패라다임을 중심으로 하부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영역에서는 건강문제, 건강위험, 건강증진의 하부 영역으로 나누어 볼 때, 건강증진 영역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국내의 다른 연구들(방경숙 등, 2008; 송경애 등, 2008)과도 일치하였으며, 건강문제영역에서는 질병관련이 34.1%로 가장 높았다. 간호영역에서는 간호 연구 및 교육, 간호중재, 간호행정의 하부영역으로 나누어 볼 때, 간호중재영역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국내의 다른 연구들(서문자 등, 2001; 양숙자 등, 2011)과도 일치하였다.

주요어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9.7%를 차지한 데 반해, 건강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일반인이 대상자의 63.8%를 차지하여 환자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의 영역이 질병회복이나 재활 뿐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및 증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 나라에서 노인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에 대한 주요어에서도 관련 되어 나타났는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dementia)가 건강의 주요어 빈도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한국에서는 건강문제 중에서 우울(depression)이 빈도가 높아 산후우울, 청소년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국내 연구들(고은 등, 2010; 이미형 등, 2007)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여성건강 간호 연구의 분석에서도 하부영역 중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19.8%로 다음을 차지하여(고효정, 권윤희, 남승희, 전경미, 정은숙, 2005)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영역에서는 물리적 환경과 심리사회적 환경으로 하부영역을 나누었을 때, 심리사회적 환경영역이 61.7%를 차지하여 위의 인간영역의 주요어에서 나타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요어 분류에서 한국에서는 주요어의 사용에 대해 간호분야 학술지에서 MeSH 분류체계를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일관성 있는 용어들로 주요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서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본인의 연구주제에 알맞은 주요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는 비슷하나 다양한 용어들을 주요어로 제시하고 있어 분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EAFONS의 초록 제출 지침에 MeSH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하거나 주요어에 대한 규정을 논의함으로써 동아시아 간호학자들간 주요어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준화하고 비슷한 의미의 다양한 용어들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1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14차 동아시아 간호포럼(EAFONS 2011)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초록 539편을 분석하여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간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양적연구가 대부분이지만 적지 않은 질적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으며, 연구설계는 유사실험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원시실험연구도 있어 더 체계적으로 고안된 실험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지에 치중되어 있는 자료수집방법도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겠다. 연구주제는 질병회복뿐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요어 분류에서는 건강, 간호, 인간, 환경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주

요어는 일정한 분류체계가 통용되지 못하여 의미는 유사하나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어 주요 용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나라들의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실제, 자료수집방법 등 연구방법과 주요어를 분류하고 한국의 분석 결과를 일본이나 기타 아시아 지역 나라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간호연구의 현 위치를 파악해볼 수 있었으며, 향후 더욱 인접한 동아시아나라들과의 교육, 연구 측면에서의 교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간호과학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간호교육학회 (2011). *Research Methodology for Building Nursing Evidence. 제4회 동아시아 간호포럼 학술대회자료집*.
- 고은, 소향숙, 조인숙, 김혜영, 김영재, 서남숙, 이명숙 (2010). 국내 간호 학술지에 게재된 중앙관련 연구 동향분석 : 2003-2009년. *간호과학논집*, 15(1), 29-45.
- 고효정, 권윤희, 남승희, 전경미, 정은숙 (2005). 여성건강 간호연구의 최근 동향: 1998-2003. *계명간호과학*, 9(1), 39-46.
- 김소야자, 김귀분, 이명선, 이광자, 안양희, 김희순, 박영주, 고명숙, 송경애 (2002). 간호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대한간호학회지*, 32(1), 114-130.
- 김중임, 이은희, 강희선, 오현이, 이은주, 전은미, 천숙희 (2010).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최근 3년간의 논문분석 (2007-2009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3), 307-316.
- 방경숙, 이선옥, 박영임, 전명희, 김현숙, 손행미, 강정희, 유수정 (2008). 2007년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논문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244-251.
- 서문자, 김소선, 송미순, 이명선, 오의금, 신경림, 김옥수, 이숙자, 이영자, 오효숙, 정재심, 김철규 (2001). 성인간호학회지 논문(1989-2000)의 내용과 경향분석. *성인간호학회지*, 13(4), 571-580.
- 송경애, 김중임, 최동원, 김애경, 정승교, 김경희, 박선남, 박훈정, 임난영, 장성옥 (2008). 기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 탐구-2001년부터 2007년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기본간호학회지*, 15(3), 262-273.
- 양숙자, 함옥경, 한숙정, 이영숙, 한영란, 백희정, 심문숙, 권명숙, 김광숙, 석민현, 임미림 (2011). 한국보건간호학회지 게재 논문분석-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5(2), 153-173.
- 이광자, 강윤희, 구미옥, 김경희, 김옥수, 서연옥, 서은영, 양수, 이은현, 이자형, 최명애, 하양숙 (2012). 한국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의 내용과 경향분석: 1982-2010년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42(2), 302-309.
- 이규은, 박영례, 조근자, 박미정 (2011).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게재논문 분석을 통한 기초간호 연구동향-1999년(창간호)부터 2010년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13(2), 81-93.
- 이미형, 손정남, 원정숙, 정명실, 현명선, 한금선, 김정숙 (2007). 정신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을 통한 정신간호 연구 동향: 창간호에서 2006년도까지. *정신간호학회지*, 16(3), 295-307.
- 최명애, 정재심, 임경춘, 김주현, 김금순, 권정순, 김성재, 김경희, 광찬영, 박광옥, 이경은, 김을순, 이경숙 (2010). 임상간호연구 학술지 게재논문(1995-2008년)의 연구동향 분석. *임상간호연구*, 16(20), 95-105.
- 최명애, 방경숙, 박연환, 강현주 (2011). 국내 근거기반간호의 현황과 발전 방향. *간호학의 지평*, 8(2), 129-138.
- 한경자, 김현아, 김숙영, 김정수 (2002). 국내 아동간호학 분야의 연구개념 고찰. *아동간호학회지*, 8(4), 449-457.
- Mantzoukas, S. (2009). The research evidence published in high impact nursing journals between 2000 and 2006: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 479-489.
- McSherry, R., Artley, A., & Holloran, J. (2006). Research awareness: an important factor for evidence-based practice?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3(3), 103-115.
- Rahm-Hallberg, I. (2006). Challenges for future nursing research: Providing evidence for health-care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3, 923-927.
- Walker, L. O., & Avant, K. C. (2005).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4th ed.). NJ: Pearson.

Nursing Research Trends Analysis Using 2011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EAFONS) Abstract*

Choe, Myoung-Ae¹⁾ · Bang, Kyung-Sook²⁾ · Kim, Nam-Cho³⁾ · Kim, Shin-Jeong⁴⁾
Kim, Yong-Soon⁵⁾ · Kim, Hwasoon⁶⁾ · Ryu, Eunjung⁷⁾ · Park, Young-Im⁸⁾ · So, Hyang Sook⁹⁾
Shin, Sung Rae¹⁰⁾ · Oh, Kyong-Ok¹¹⁾ · Lee, Kyung-Sook¹²⁾ · Lee, Sun Ock¹³⁾ · Lee, Eun-Ja¹⁴⁾
Jeong, Jae Sim¹⁵⁾ · Cho, Mi-Kyoung¹⁶⁾

1) College of Nursing-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 College of Nursing-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3) Catholic University, 4) Hallym University, 5) Ajou University, 6) Inha University, 7) Chung-Ang University

8) Daejeon University, 9)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0) Samyook University, 11)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2)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3)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14) Gachon University

15) Ulsan University, 16) Eulj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Asian research and suggest a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nursing research in Asian countries. **Method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sian nursing research, 539 abstracts presented at the 2011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in Seoul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tructured analysis format.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studies (77.6%) were quantitative design, but qualitative design was also conducted. Most of quantitative studies were quasi experimental designs and questionnaires are most frequently used for data collection. Only 8.5% of the studies used physiological measures. Key words were categorized into four nursing metaparadigms: clients, environment, health and nursing.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domain was health. Main themes of research were elderly, chronic disease, health promotion, and nurse/nursing management. Most frequently used key words were elderly,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tress. **Conclusion:** Major trends were similar in Asian countries, and mostly conducted with quantitative designs. Research topics were varied and major interests in nursing research topics were elderly, health promotion, and mental health in all countries. We need to develop nursing science based on close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Key words : Asia, Nursing, Research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Bang, Kyung-Sook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Korea

Tel: 82-2-740-8819 Fax: 82-2-765-4103 E-mail: ksbang@snu.ac.kr